

다산포럼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각자 농사지어 먹고 옷 만들어 입으며 풍속을 편안히 여기고 일을 즐기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이웃 나라 조차 왕래할 일이 없는,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정치다.”

노자가 꿈꾼 세상이다. 문명의 발달이 없으면 욕망도 줄어들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도연명의 무릉도원처럼 오랫동안 이상향의 모습으로 그려져온 했다.

하지만 일찍이 사마천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사람들이 욕망을 만족시키는 온갖 좋은 것에 노출된 지 오래여서 들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게 그 이유다. 따라서 이제 최고의 정치란 사람들의 욕망을 인정하고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익을 잘 얻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통치자가 사람들과 이익을 두고 다투려 한다면 그건 최악의 정치다.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탁월하게 이룬 이들을 다른 '화시열전(貨殖列傳)'의 서두에 나오는 말이다.

노자의 '소국과민'은 공(公)과 사(私)가 아직 분리

최고의 정치와 최악의 정치

되지 않은 공동체다. 따라서 개인이 추구하는 사적 이익이 전체의 공적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가 확장될수록 사적 이익은 공적 이익과 충돌하기 시작한다. '공'의 자원을 '사(私)를 등지다'라고 보아 '사심을 배제하고 공평하게 나눔'의 의미로 해석해 온 전통이 이를 반영한다. 유교적 국가 이념이 보편화됨에 따라 공에는 긍정, 사에는 부정의 가치가 점차 더 많이 주어져서, 선공후사(先公後私)를 넘어 멸사봉공(滅私奉公)을 강조하는 데에 이르렀다.

사마천의 말처럼 각자 사적인 이익을 잘 얻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선라도 공적인 정치는 필요하다. 다만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은 권력을 쥔 통치자가 공평무사(公平無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성호 이익은 백성에게 부과하는 사역 다섯 가지가 불공평하게 부과되고 있음을 비판하는 글의 첫머리에 '시경'을 인용했다. "나라를 공평하게 다스릴 위치에 있으니 온 세상이 제대로 유지되게 해야 하거늘." 주나라 대부 윤씨를 풍자한 시 '질남산'의 한 구절이다. 이 시의 앞 대목에서는 "화려하게 빛나는 태사 윤씨여, 공평하지 않으니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하여 통치자의 기본 덕목인 공평함을 갖추지 못했음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춘추호씨전'에서는 그의 행적과 죽음을 기록하면서 신분에 따른 관례상의 호칭도 없이 그저 '윤씨'라고만 낮추어 지칭했다. 높은 권세를 누리면서 불공정한 처사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인물에 대한 경계를 담고자 한 것이다.

통치자에게 공평무사의 원칙을 요구하는 것은 오늘

도 다르지 않다. 정치 제도가 발전한다 해도 이 원칙의 견지 여부는 권력을 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사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부부, 가족, 친지와 관련된 일에서 공적 잣대를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는지가 늘 시금석으로 여겨져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몇몇 정황이 가리키는 대로 그 외압의 근원이 대통령실까지 올라간다면, 이는 공평무사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다. 사소해 보이는 틈이 거대한 독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이 일의 실상을 떼뭇히 밝히지 않는 한 정권의 기반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역사에 '윤씨'라고 지칭되는 인물이 또 생기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성호 이익은 불공평한 사역의 문제를 일일이 지적한 뒤에 "한 사람이 들어앉아 눈물을 흘리면 온 집안사람이 그로 인해 즐겁지 못하다."라는 말을 인용했다. 통치자가 부조리한 현실을 알면서도 방관만 할 뿐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린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면서 이렇게 일갈했다. "오늘의 정치는 구해주시 않을 뿐만 아니라 채찍질을 가하여 어서 죽으라고 재촉하고 있다." 통치자가 누구나 자유롭게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공평한 여건을 마련해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쟁취하는 데에 열안이 늘 최악의 정치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오늘, 돌아앉아 눈물 흘리는 이가 없는 지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살려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NGO 칼럼

벼랑 끝에 내몰린 발달장애인 가족



최인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을 간병한지 9년이 되는 해에 아버지는 발가락이 절단되고 근육 신경이 손상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복합부위동중추증후군(CRPS)이라는 희소병까지 얻게 되었다. 아들에 이어 아버지마저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결국 본인의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르러 아버지는 해서는 안 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정의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3년의 기록을 살펴보면 2022년 10건, 2023년 11건, 2024년 상반기에만 3건이 발생하였다. 발달장애인 가족 내에서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사회적 참사를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 목소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제도 외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들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전체 발달장애인 중 41.2%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부분의 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며 주지원은 88.3%가 부모라고 한다. 즉 발달장애인의 대다수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나 가족과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월평균 120시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발달장애인 가정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정보를 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지원자를 구하지 못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위의 사례에 언급한 발

달장애인 당사자도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최중증 발달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30세의 늦은 나이에 월 90시간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정책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발달장애인 가족 구성원에게 그 돌봄과 지원이 강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돌봄과 지원의 절벽에 내몰린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본인의 한계까지 돌봄과 지원을 이어가다 결국 참담한 선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를 사회적 타살로 부르는 이유인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없다는 말이 있다. 현재 발달장애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족에게만 그 책임을 맡겨두고 외면하여 사회적 재앙이 된 것이다. 발달장애인을 다르게 보지 말라는, 그들도 우리와 함께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공익광고를 정부에서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가정의 문제는 느긋하고 아름다운 인식개선 광고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지난 4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17개 시도 전국 오체투지 투쟁을 진행하였다. 더 이상 죽고 죽이지 않기 위해 거리로 나와 온몸을 내던져야 필요한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6월에도 그들은 또다시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오체투지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제 관념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의 요구를 정부는 직접 들어야 한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경청하지 않으면 비극적인 참사를 막을 수 없다.

지역 영화와 영화제의 가능성

지역 영화제 개최는 지역영화 현황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다. 영화제 참여 작품과 참석 게스트를 카운팅하며 지역의 창작자 규모를 짐작할 수 있고 영화제에 다녀간 관객의 수로 지역영화를 향유하는 시민의 규모를, 지역 영화제를 구성하는 거버넌스와 재원 구조를 통해서도 지역 영화의 제도를 관측할 수 있다. 이것이 지역 중심 개최 영화제의 의이라 한다면 이를 넘어 외부 영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한 중소규모 이상의 지역 영화제들은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관광산업으로 의미가 있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지역 영화제의 가장 큰 의미는 '누구나 쉽게 영화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지역 영화제에서 가장 관객이 많은 섹션들은 역시 지역 작품을 상영하는 섹션이다. 지역영화의 관객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음 해나 그 다음 해에 자신이 직접 만든 영화를 상영하며 게스트로 재방문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보아왔다. 그렇게 지역영화를 꿈꾸게 된 영화인들은 초등학교생부터 초로의 노년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시간과 공간에 내가 상상한 인물과 대체로운 이야기를 접목하고, 상업적이고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실현가능한 방법과 표현으로 영화를 만든다. 자신만의 그림과 목소리로 삶의 이야기를 펼쳐낸 임영희 감독의 '양림동 소녀'가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지역 영화제에 담긴 다양성은 관객들에게 많은 영감과 감동을 줄 수 있다.

지역 영화제와 지역영화는 누구나 쉽게 '내가 필요한 영화제, 내가 만들 수 있는 영화'라는 문턱이 낮고 진입이 쉬운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 영화제의 역사가 쌓여갈수록 지역 영화인들의 숙련도와 전문성이 발전하게 되고 지역 영화제 역시 그에 걸맞게 상영 프로그램들과 교류 및 네트워크, 제작지원, 경쟁분야 등을 발전시키게 된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3년 광주독립영화협회의 회원수가 10% 이상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 발굴 기회가 창작기회로 확대되어 매년 광주에서 창작되는 영화 편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영화와 지역 영화제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이 이처럼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역영화 예산 삭감과 광주시의 영화전담 공적기구의 부재 등으로 인해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제작지원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역을 뿌리로 성장하고 살아가는 청년 및 지역 감독들이 장편 제작 기회를 마련하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광주극장과 광주독립영화관 GIFT에서 13회 광주독립영화제 '영화로운 불빛을 켜'를 슬로건으로 30여편의 지역 기반 신작들이 상영된다. 지역 영화인들이 광주 시민들을 만나는 방법이다. 광주 지역 영화와 영화제, 예술극장 및 독립영화관이 생존의 열쇠를 열어왔던 방법은 언제나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이었다. 올해 지역 영화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객석에서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社說

순천만정원 전국 1위...관광지 연계 전략 필요

순천만국가정원이 지난 한 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내 관광지로 선정됐다. 용인 에버랜드와 서울 롯데월드·경북궁 등 내로라하는 국내 대표 관광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지역민들에게 전례없는 예상 밖의 기쁜 소식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752개 주요 관광지 입장객을 집계한 결과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입장객은 778만여 명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267만여 명으로 전국 9위에서 1년 만에 510만여 명이 늘어 1위를 기록한 데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영향이 컸다. 목포에서 열린 전국체전과 국제 수목비엔날레를 보기 위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순천으로 넘어온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빅 이벤트 효과가 작음했음지라도 전남 관광지가 국내 1위 관광지로 발돋움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전국 10위권에는 들

지 못했지만 여수 엑스포해양공원(206만명), 광양 청매실농원(145만명), 여수 오동도(126만명), 여수 돌산공원(120만명) 등 전남 동부권은 100만명이 넘는 곳이 곳곳에 산재해 순천·여수·광양을 연계한 관광객 유입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목포 해상케이블카(91만명), 구례 지리산국립공원(82만명), 국립공원과학관(84만명),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 차량 통제소(82만명)를 제외하면 나머지 광주·전남지역 관광지는 유입 효과가 크지 않았다. 더구나 전남은 집계에 포함된 관광지만 481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도 관광객은 상대적으로 적어 적극적인 유치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보듯 관광지가 많더라도 맞춤형 유치 전략이 없다면 관광객들을 불러 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순천만 사례처럼 적절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이를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의료계 환자 외면하고 강경투쟁 고집할 건가

광주지역 상급병원 의사들이 집단 휴진 논의에 나서 의료공백 사태가 더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잇따라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를 17일부터 휴진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나온 의협의 강경책이다.

광주지역 상급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의사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할지 묻는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참여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교수회의에서 휴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는 전국 의협투표 결과에 따른 전체 휴진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전면 휴진을 할 경우 의

협의 전면 휴진일인 18일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서울대병원 전면 휴진일인 17일로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그동안 조선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이 의료계의 움직임에 동참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의 긴박한 움직임과 동시에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도 한층 증폭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현상 이 탈 공백을 메워왔던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감행하면 의료공백 사태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대정원 증원도 문제가 없지 않으나 환자의 안전과 불안을 불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전체 휴진을 막기 위해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의료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등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의료사태를 해결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까마득한 초등학교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본다. 난생 처음 보는 전투기가 지축을 뒤 흔드는 굉음과 함께 시가지 위로 나타났다. 전투기는 빠르게 비행하면서 기체를 한 바퀴 뒤집는 묘기를 선보이며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1975년 12월, 국민들의 성금으로 구입한 F-4 팬텀II(방위성금 헌납기) 다섯 대가 전국 10개 주요 도시를 비행할 때 일이다.

지난 5월 중순 F-4E 팬텀기의 고별 비행이 있었다. 기체 옆면에는 '국민의 손길에서, 2024'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이 가운데 한 대는 1970년대 식으로 일록무늬 도장을 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팬텀 편대가 수원기지에서 이륙해 대구-부산-사천-여수-가거도-새만금 등 국도를 횡단하는 마지막 비행을 볼 수 있었다.

F-4 팬텀기

'팬텀'(Phantom)은 1960년대 개발된 F-4 전폭기의 애칭이다. 미국 맥도넬사가 1940년대 후반 개발한 세계 최초의 함상 제트 전투기 'FH 팬텀'의 이름을 이 어받았다. 마하 2.5의 빠른 속도와 적의

선 유도 공대공 미사일, 강력한 레이더 등을 갖춰 월남전에서 맹활약하며 '미끼 킬러', '하늘의 도깨비' 등으로 불린 당대 최고의 전폭기(전투기+폭격기)였다. 1969년 6월 첫 도입돼 한국 공군 전력에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1975년에는 전 국민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한 방위성금 가운데 71억여 원(당시 1443만 3000 달러)을 들여 다섯 대를 구입했다.

55년 동안 한국 영공을 지켜온 F-4 전폭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7일 수원 기지에서 퇴역식이 열렸다. 이는 단순히 한 전투기의 퇴장에 그치지 않는다. L-4 연막기로

시작한 한국 공군의 75년 역사를 상징하는 전투기이기 때문이다. F-4는 남성적인 디자인으로 '밀덕'(밀리터리 덕후)들의 사랑을 받은 기체이기도 하다. 앞서 퇴역한 구형 F-4 기체들은 무안 밀리터리 테마파크와 고흥 종합문화회관 등지에 전시돼 있다.

앞으로 우리 손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실전 배치돼 F-4를 이어 한국 영공을 지키는 모습을 기대한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기고



이순학 광주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문화콘텐츠그룹 '잇다' 대표

작년 여름, 광주시 동구와 광주 영화인들이 함께하는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고흥사랑기부체 홍보영상 촬영이 열렸다. 자리를 정돈하면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할 때 "여성 영화인들은 앞으로 서주세요"하고 이야기했더니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질문 하나를 던졌다. "어떻게 해야 여성 영화인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3F'라 칭하는 여성 감독, 여성 서사, 여성 출연자 등 많은 기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답했다. "광주여성영화제에 한 번이라도 다녀간 관객이면 됩니다." 광주여성영화제, 광주독립영화제, 광주극장 개관 기념 영화제 등 광주 시민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는 지역 영화제에서 관객으로 시작해서 창작하는 영화인이 되는 케이스가 많다.

지역에서 영화제는 우리가 지역영화 크루를 발굴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자 발판이다. 4년 전 광주여성영화제 10주년 기념으로 '야짜다 10년' 다큐멘타리를 제작했는데, 광주여성영화제 10년 동안 김경심, 허지은, 이경호, 김소영 감독 등 광주에서 여성 영화를 제작하는 크루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굴되었는지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었다.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